

안 마항(鞍馬港)은 굴비로 유명한 전남 영광군 백수면에서 약 30km 떨어진 서해상 안마군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마항은 과거 조기어장으로 많은 어선들이 몰려들었던 칠산어장과 안마어장이 있어 4~10월의 성어기엔 지방어선과 외래어선이 가득 몰려들어 성시를 이룬다.

외래어선 많은 긴급 대피항

특히 이곳 안마항의 특징은 이 어항을 근거지로 하는 지원어선이 80여척에 불과한 대신 외래어선이 많다는 점이다. 하루 평균 20여척의 외래어선이, 많을 때엔 100척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기의 변동이 심한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악천후가 됐을 경우 안마항을 긴급 대피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탓이다. 북쪽에는 건산이, 동쪽에는 뒷산이, 남쪽에는 막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같이 긴급 대피항으로서 가히 천연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종은 꽃게 중하 정도. 앞서 밝혔듯이 과거엔 조기의 대량 어획으로 성시를 이루던 것이, 그동안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로 이제는 조기어장으로서로는 다소 유명무실해진 감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항의

颱風·海溢과 싸우며 보낸 1년

신 성 수 <남진건설(주) 상무>



개발이 일찍부터 요청되어 온 이유는 이곳이 서해안 어장의 주요 중간 요충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항을 이용하는 현재의 어선들이 대부분 5톤안팎의 연안유자망 어선이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항이 수산청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된 것은 불과 4년전인 1985년 12월 30일 개발착수가 비교적 늦은 편이다.

3종항지정늦게 했지만 개발비 규모 커

그렇지만 안마항에 투입되는 개발비는 엄청나다. 이것은 그만큼 장차 안마항이 서해안에서 차지하는 거점항 혹은 전진기지항으로서의 비중을 높여 사고 있다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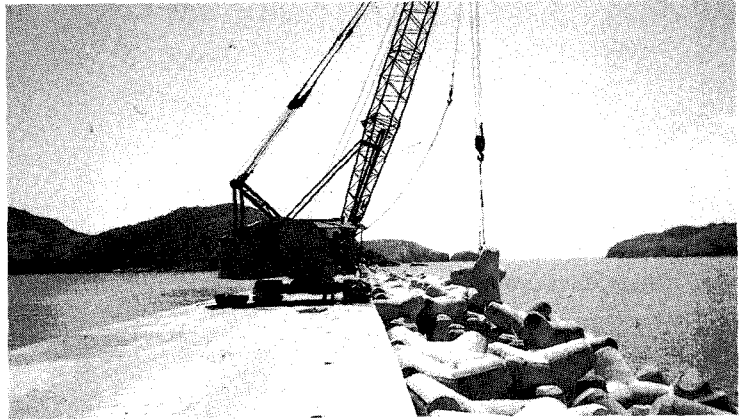
안마항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86년부터 우리 남진건설(주)(대표 김태업)이 웅대한 이 사업을 맡아 밤낮없는 노력을 쏟고 있다.

안마항의 시설계획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북방파제 550m, 남방파제 300m, 물양장 170m, 호안도로 40m, 파제제 100m, 선착장 100m 등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무려 129억 3,400만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시기를 1991년으로 잡고 있다.

1988년까지는 가장 난공사이면서도 어항의 면모를 갖추기에 중



올해의
태풍과 해일은
모두 서해안에만 집중적으로 몰아쳐 육지에서 80리 가까이 떨어진 섬에서의 공사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입혔다.
더욱이 공사가 한창 절정에 달한 8월말과 9월 초에 몰아친 해일은 비바람속에서 많은 공사관계자들로 하여금 뜬 눈으로 현장을 지키게 하는 고통을 주었다.



요한 공사인 북방파제 163m와 파제제 100m, 선착장 100m를 우선 완공했다.

올해는 북방파제 200m를 지난 4월 6일 착공, 10월 6일 이미 완공한 바 있다.

이에따라 나머지 물량인 북방파제 187m와 남방파제 300m, 물양장 170m, 호안도로 40m 등은 늦어도 2년안에 완공할 계획인데 서해안 낙도에 새로운 위용을 갖춘 우수한 어항이 나타날 날도 멀지않았다.

태풍여섯차례나 공사 한창때 닥쳐

올해 공사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난해 비교적 잠잠했던 태풍이 큰 것만 6차례이상 몰려온 것.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의 태풍과 해일은 모두 서해안에만 집중적으로 몰아쳐 육지에서 80리 가까이 떨어진 섬에서의 공사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입혔다. 더욱이 공사가 한창 절정에 달한 8월말과 9월초에 몰아친 해일은 비바람속에서 많은 공사관계자들로 하여금 뜬 눈으로 현장

을 지키게 하는 고통을 주었다.

서해의 외딴 섬에서, 육지에서처럼 기동성을 갖출 수도 없고 이동이 어려운 거대한 장비를 부여안고 격렬한 전투를 하듯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는 현장 종사자와 수산청 어항과 이수문 감독관의 애쓰는 모습은 차라리 안쓰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어항공사 현장에서 거의 청춘을 바치다시피한 현장 소장으로서 이러한 난관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지나가는 시련에 불과했다.

우리의 노력 뒤에는 수산업의 장래가 걸려있고, 수많은 어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것이다.

■ 착공6개월만에 공사대부분마쳐

다행히 이같은 악천후 속에서도 뜨거운 사명감과 열의로, 아니 그것은 흡사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승리로 이끌듯 착공 6개월만에 올해의 공사분을 모두 마쳤을 때 그 기쁨은 무엇에다 비교할 수 없었다.

이와함께 이같은 도서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를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지만, 석산의 개발문제와 대형장비선의 확보문제, 그리고 이러한 공사장비가 원만히 도입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정리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어항공사가 진행되는 동



예를 들자면 올해도 공사를 2달 정도만 앞당겼다면 8,9월의 태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어민들의 피해 역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아쉬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속 깊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안에는 공사장 인근의 어민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는 장차 어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아량을 갖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으면 싶다.

또한 앞서도 보았듯이 이곳 어장의 성어기가 4~10월인데 공사기간 역시 4~10월이라서 묘하게 기간의 일치로 인하여 공사와 조업이 서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 공사발주앞당겨야 연중공사고려할일

즉, 공사의 발주시기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연중공사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이같은 번거러움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

르겠다.

물론 정부 예산회계년도상 감독관청 역시 뾰족한 방도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공사기간 중에 태풍이나 해일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결국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올해도 공사를 2달 정도만 앞당겼다면 8,9월의 태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어민들의 피해 역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아쉬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속 깊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까지는 여러가지 자연의 재해가 몰려와도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온 탓에 안마함은 앞으로 2년 뒤엔 어항으로서의 새 면모를 보일 것이 틀림없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공사 완공후의 효과는 항내 수면적 122만 m², 정온수면적 60만 m³ - 이는 10톤 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300여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능력이다.

아마도 서해안에서 이 정도의 어항이 그리 드물 정도의 명함이 탄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480톤에 불과한 연간 어획량에다 1억 7,000만원 안팎의 어획고도 큰 변화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온 어촌지역사회 발전의 핵으로서 이 상어촌을 이곳에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항사의 신기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차제에 다짐해 둔다. ㉠